

일본에 볼모 잡힌 우리의 실용서들

서점가에 번역서들 넘쳐 ... 마케팅·재테크·건강서의 대부분 차지

해묵은 이야기지만 한때 주부들 사이에서 일제 '코끼리 밥통' 열풍이 분 적이 있다. '코끼리 밥통'을 사고, 그것을 갖기를 소망했던 많은 주부들은 '좋으니까'를 이유로 들었다. 좋은 품질 앞에서는 국익이고 뭐고 뒷전이 되는 게 기본적인 경제논리다.

최근 우리 출판계에도 일종의 '코끼리 밥통'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경제·경영 분야의 책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나라마다 문화적 전통과 인간관계의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처세술 책의 태반이 일본번역서다. 그뿐인가 인기 순위를 모두 일본만화에 내주고 있는 만화시장은 참담한 상황이고 이밖에도 심리학, 건강에 이르기까지 일본책의 '활보'는 코끼리 밥통의 열풍을 능가한다.

경영기법 등 대거 소개

'책이 사람을 이끌고 사람이 책을 이끈다'는 문구에 비춰보자면 우리나라 경영분야는 일본에 의해 견인된다. 리엔지니어링, 머천다이징, POS, 무점포 비즈니스, 인터넷과 비즈니스 등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거나 끌고 있는 경영기법을 소개하는 책들은 모두 일본책이다.

경제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히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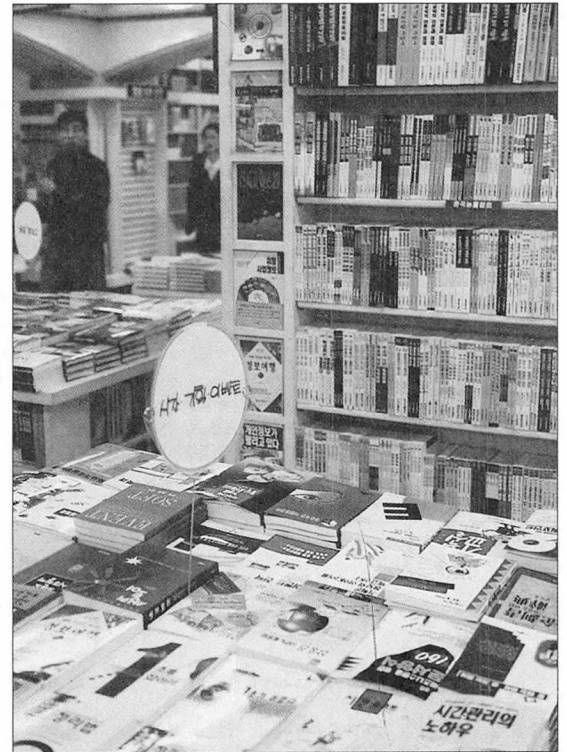
품' '성공하는 점포' '돈을 벌려면...' '잘 팔리는' 등 넓은 의미의 재테크 실용서라 할 성격의 경제서들이 서가를 덮고 있다. 번역 출판된 처세서들의 면면은 안타까움을 배가한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여심공략법' '첫인상으로 상대를 간파하는 법' 등 오십보 백보의 내용을 지닌 처세서들이 여러 출판사들에서 대거 출판돼 있다.

경제·경영·처세 분야에서 일본 번역서가 우리 서가를 점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국산업연련연구소 발행인 박종언씨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기법이 일본을 많이 따르고 있고 사회 발전과정도 일본의 그것과 흡사하므로 특히 이 분야 일본책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한다.

일본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한국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선례가 있거나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극히 미미한 것도 책으로 소개될 때는 장점만 부각된다.

특히 이들 책 가운데는 역자의 약력을 생략하거나 저작권 사항이 빠져 있는 등 출판사의 자질과 번역의 책임성을 의심케 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 강화 이후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짜깁기의 혐의가 짙은 편저나 원서를 밝히지 않은 편역 형식의 책들도 적

최근 서점가를 돌아보면 경제·경영·학습법·건강서류가 온통 일본책 번역서들임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상황이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일본책들은 넘쳐난다. 그 가운데 과연 로열티가 아깝지 않은 꼭 필요한 책이 얼마나 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서점가의 마케팅·건강서 코너엔 일본책 번역서가 대부분이다.

지 않다. 한 출판인은 일본 실용서가 특히 자료 정리와 요약이 잘 돼 있어 짜깁기하기 편하다고 귀땀한다.

일본에서는 책이 마치 대중가요처럼 '유행'한다. 책 한권에 담긴 새로운 '설(說)'은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들쭉거리게 한다. 일

본 사람들을 들끓게 만든 책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략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휩쓴 《초 학습법》 《뇌내혁명》 등은 좋은 예다. '초수면법' '이미지 컨트롤' '머리회전을 좋게 하는 법' '두뇌훈련법' '혈액형과 인간관계' '색채운명론' '환생' '최면술' 등 다양하기도 한 일본인들의 관심사는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된다.

건강서도 마찬가지다. 박석준(동일한의 원 원장)은 일본건강서들이 특정한 측면을 일반화해서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는다. '하면 된다' '먹으면 된다' 식의 논조를 지닌 건강서들이 많은데 이런 특성이 독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평가다. 단서가 많고 이론적이고 어려운 책은 인기가 없다는 것. 두충건강법이니, 약탕법, 풀목욕 등 도무지 낯설고 황당하기만 한 건강법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꼴이다. 토양도 물도, 사람도 다른 상황에서 여과없이 받아들인 일본 건강법이 과연 효용이 있는지의 문제는 기본이다. 저자의 전문성도 문제다. 간혹, 교수라고 약력이 기재되어 있지만 연구업적은 영 신통치 않

출판가

새 국면에 들어서는 몇가지 움직임

연대 모임·자회사 설립으로 새로운 모색

97년 한국출판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몇가지 징표를 보여주고 있다. 각개약진에 한계를 느낀 출판사들이 연대를 모색하는가 하면, 90년대 초 속속 진행된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이어 올해는 자회사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서울출판인포럼'은 국내 우수 출판사들이 연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출판문화의 역량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만든 모임. 교문사·나남출판·돌베개·문예출판사·법문사·산하·언어문화사·자작나무·창작과비평사·해냄 등 40여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월 10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에서는 총무에 김연호 대표(한길사), 간사에 최선호(세계사)·김종수(한울)·임성규(문이당) 대표를 선출했다. 한달에 한번 모여 출판계의 현안과 문화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민음사·창작과비평사·문화과지성사·세계사·문화동네 등 국내 굴지의 문학출판사 편집책임자들이 소모임을 꾸려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 도서전에 공동으로 한국문학관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등 몇가지 공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문학관련 출판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소식지도 펴낼 예정이다.

자회사는 출판사의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돼 왔다. 민음사는 '비룡소'와 '황금가지'에 이어 과학물을 전문적으로 파내는 자회사를 2월중에 설립한다. 발행인을 맡게 될 이갑수 편집국장은 전문적인 과학세계를 담고 싶다고 밝힌다. 한길사와 푸른숲은 인문·사회 분야를 특화시킬 자회사 '리브로'와 '푸른역사(가칭)'를 각각 세운다. 리브로에서는 전기물을 우선 담아볼 요량이고, 푸른역사에서는 역사학에서 인류학까지 포괄한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해냄은 만화를 출판하는 자회사 '해냄미디어'를 세워 만화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밖에 다른 출판사들도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최성일 기자

작고 사소한 하나의 세계

《개미세계 여행》을 읽고

강규 · 소설가

은 경우도 많다.

대중가요처럼 유행하는 책

국내에 번역되는 일본책 가운데 철학이나 역사, 사회 등의 수준높은 연구업적을 담은 책이나 문학류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번역돼 있는 일본 번역서의 많은 부분은 실용서다. 경제도 경영도 건강도 심리학도 모두 대중적인 실용서로 각색된 책이다. 문학책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출판사들이 일본의 실용서에 관심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학자든 연구소의 연구원이든 쉽고 재미있고 말랑말랑하게 글을 쓴다. 자연 독자들의 반응도 좋다. 이에 대적할 만한 국내 필진을 찾지 못한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고 밝힌다. 설사 국내 필자가 있다 하더라도 집필 기간을 쥐야 하므로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

로열티와 인세를 제하더라도 저작권료와 표지 등 제작비에 비하면 원가가 훨씬 싸게 먹힌다는 잇점이 있다. 영미권의 로열티는 권당 평균 2500불(200만원)인데 비해 일본 실용서는 평균 15~20만엔(150만원)으로 싸다. 인세율도 6% 정도. 저작권료에 표지 제작비 등을 다 계산한다면 번역 원가가 훨씬 싸다는 계산이 쉽게 나온다.

한편, 저작권 에이전시 임프리마 코리아의 정숙경씨는 “책의 내용이나 수준을 검토하기보다는 제목이나 시장성에 급급하는 번역서 선정 관행이 최근 그나마 시장성이 있는 실용서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라고 분석한다.

번역도 기획이다. 정확한 기획의도 없이 제목이나 화제성 때문에 텍스트를 선택하고 영성하고 성급하게 번역해 시장에 내놓는 식의 책을 내기 위한 출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겹치고 넘쳐나는 일본 번역서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것’을 내팽개친 채 편하고 좋다고 쉽게 집어든 출판계의 ‘코끼리 밥통’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박남정 기자

어느 한가로운 봄날 교외 어디쯤 풀밭에 앉아서 빵을 먹는다. 그때 빵부스러기가 발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잠시 후 어디선가 개미들이 몰려 나와선 일사불란하게 그 달콤한 식빵을 나르기 시작한다. 그 근처에 작은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좀 도와 주련? 하는 마음에 빵조각을 들어 구멍 앞에 놓아주자 영문 모르는 개미떼는 혼비백산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한다. 진정해라, 진정해. 하하. 난 그저 짐을 좀 들어주었을 뿐이다.

얼마가 지났을까. 누군가 명령이라도 했다는 듯 그 성실한 곤충들은 이윽고 대열을 정비하고 집 앞으로 신속하게 배달된 빵조각을 짚어지고 구멍으로 들어간다. 한가로운 봄날이다. 나는 미소를 띠고 발 밑의 그것들을 들여다본다. 그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몸을 굽히고 눈을 좀 비벼야 한다. 현미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생물학자 윌드볼러와 윌슨의 역작 《개미세계 여행》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 내 발 밑에 이런 것이 있었군! 탄성이 나오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호기심이 깊어져 탐구심으로 발전하고 작고 사소한 한 세계가 새롭게 열리고 이윽고 ‘개미사랑에 빠지는 자’들의 처음 시작은 아마도 그런 풀밭에서부터.

‘전쟁과 외교정책’ ‘갈등과 순위제’ ‘사회

이 책은 개미군체를 채집하며

40년 이상 관찰하고 탐구한

경이로운 결과물이다.

지구 출현 이후

수천만 세대를 살아오면서

9500여종에 이르렀고

200만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개미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과 관찰로

가득차 있다.

적 기생자, 암호 해독자 ‘군대개미’라고 이름붙여진 각 장의 제목들은, 그들이 몸을 굽히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부식토와 낙엽층을 뒤져서 개미군체를 채집하며 40년 이상을 관찰하고 탐구한 경이로운 결과물이다. (윌슨은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사회생물학》의 저자이고, 역자 역시 이 책과 같은 사람이다.)

이 책에는 내가 즐겨 보던 〈동물의 왕국〉의 저 야성의 세계, 들판과 습지와 밀림과 바닷속에서 포착한 슬한 동물들, 이를테면 오직 특수한 감각본능으로만 움직이며 생태계의 유기물 분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작은 곤충, 지구의 출현 이후 수천만 세대를 살아오면서 9500여종에 이르렀고 200만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개미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과 지식들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는 ‘만약 인간이 사라진다면 나머지 다른 생물들은 다시 활기를 찾아 번성할 것’이



강규씨.

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량 절멸은 정지되고 손상된 생태계는 치유되고 확대되어 나가’겠지만, 만약 개미가 사라진다면 ‘생물종의 멸종은 더욱 촉진되고 육지생태계는 개미들이 베풀었던 상당한 봉사 사라지면 서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놀라운, 그러나 틀림없는 가정! 생물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찬 그 자연주의자들은 이 지구와 자연을 손상시키는 일에 열중하는 오만한 인류를 향해 점잖게 당부한다.

“그 사이 우리는 제발 이 미천한 개미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인류가 좋아하는 적합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며,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때의 ‘지구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곳이었던가를 상기시켜주는 주인공’으로 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어떤 환경보존의 구조보다 절실하다. 그것은 이 두껍고 흥미있는 책이 주는 수많은 교훈과 유익 중의 한 가지일 뿐이다. ❖

에드워드 윌슨 외 지음/이병훈 옮김
범양사출판부/B5변형/294면/18,000원

